

에 의하여 성취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업의 소득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지로부터 부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외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어촌이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지에 머물지 않고 3차 산업, 즉 관광어촌개념의 도입을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어촌과 해안지역이 지니는 개발잠재력은 매우 크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여가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욕구의 레저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이를 충족할만한 대상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여태까지 해안지역은 도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도로의 개설 등으로 접근성이 확보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능성만을 의미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촌이 관광의 대상으로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육지소규모 어항 119 개소를 조사한 결과

를 토대로 하여 어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광의 대상으로서 어촌을 개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촌의 실태 및 문제점

어업의 영세성과 노령화

어촌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 육지소규모어항은 '99년말 현재 963개소로 남해안이 630개소로 가장 많고 동해안과 서해안이 각각 151개소와 111개소이며 제주는 단일 섬이면서도 7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는 321,857명이며 한 어항당 평균 33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의 경우에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한편 지역발전의 주체 세력이 취약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소규모어항 거주자중 어업전업자의 비율은 30.7%이며 겸업자를 포함하면 65.9%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에도 전업자와 겸업자의 비율이 각각 33.0%와 30.8%로 63.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반농반어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어항의 주 소득원은 수산업으로

전체 소득의 54% 정도이며 농업도 34%에 달한다. 해역별로는 동해와 서해의 어업소득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주의 경우는 농업의 소득비중이 60% 이상으로 타 해역에 비해 농업이 매우 높다. 어업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보유 어선수는 전체 29,245척으로 어항당 30척 정도이며 선박의 크기는 평균 2.1톤으로 조사되었다. 어업으로 인한 소득은 어항당 평균 799백만원으로서 어업가구당 평균 12.8백만원에 불과하였다.

어항기반시설의 취약성

정박여건을 보면 전체 어항의 약 20% 정도만 양호하며 절반 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시설로 방파제 30.1%, 선착장 39.4%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불리한 여건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은 정박여건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박시설은 어항의 중추시설로서 원활한 어업활동 및 어항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타 시설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서해안의 경우에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

의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선착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선착장의 길이가 조건대보다 좁은 지역에 설치되면 어로활동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선착장의 설치비용은 소요길이와 함께 선착장의 높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해안의 조차는 목포지역에서 약 4m이나 북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아산만과 인천지역에 이르러서는 9m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 아산만 연안지역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선착장을 축조하여야 한다. 반면에 방파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실제로 방파제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어항이 많이 있다.

동해안이나 남제주 해안의 경우, 서해안과 달리 조차가 0.3m 이하로서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그러나 해안경사가 매우 급하여 연안의 수심이 깊은 관계로 파랑이 해안에 근접할 때까지 감쇄되지 않으므로 큰 파랑이 자주 발생된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하여 선착장의 길이는 서해안의 경우보다 짧으며 이에 따라 건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강한 파랑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해

안의 경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방파제가 축조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선착장이나 방파제와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의 열악성

어촌지역의 주택은 서해안이나 지역에 비하여 노후도가 낮으며 제주지역이 노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지역에서 동해안과 제주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각각 60.0%와 41.7%에 달해 타 지역보다 높았으며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각각 8.3%와 19.2%로 매우 낮았다. 서해안의 경우 56.3%의 지역이 개별상수도를 설치·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항부근의 수질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어 동해안과 제주지역은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오염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역중에서 수산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해상에서 처리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오폐수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어 연안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폐기된 어구 등이 어항 주변에 방치되거나 바닷속에 유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발정책 부재

현재까지 소규모어항 및 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은 뚜렷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한정된 예산을 각 지역에 고루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 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낚시 등 어업외의 소득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규모어항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기 국토개발정책의 부재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어항·어촌 및 연안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광어촌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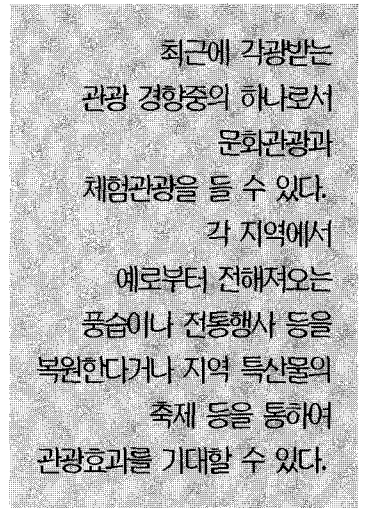
관광어촌을 향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주요한 것으로서 여가문화형태의 변화와 접근성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근래 들어 급속한 경제력의 향상으로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관광대상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촌과 해안 지역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도시인들의 레저생활 패턴이 명소를 찾아다니는 형태에서 한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기는 서구형 여가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인들이 해안 및 어촌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수동적인 관광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인들에게 있어서 해안지역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도로의 확포장사업이 활발해져서 웬만한 지역은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러한 외부적 요건은 많은 도시민들이 어촌과 해안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해안도로 연결사업은 이러한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광어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성의 개선과 더불어 현지에서의 주차 및 교통순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규모어항 및 어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촌들이 특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항과 바다 그리고 어촌 자체가 관광자원이며 이들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만 있다면 그 외의 특별한 자원이 없이도 훌륭한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은 제주도 와 더불어 각각 독특한 해안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어항별로 특산물이 다르고 어촌지역에 따라 다른 풍물과 문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



역마다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다면 관광어촌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개발방향

육지소규모어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수는 30만명 정도로 전 국민의 0.7%이며 육지소규모어항 자체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2.6%에 불과하나 해안의 총연장은 전체 해안선의 23%를 차지하여 국토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소규모어항과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촌의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환경의 보전과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광어촌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야 하며 이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의지에 기초한 개발

성공적인 관광어촌개발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소규모어항의 관리주체는 어촌의 주민들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개발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 진행의 전 과정에 참여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투자우선순위 및 분담금의 결정, 주민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상충과 같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의 보전을 고려한 개발

향후 21세기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이며 어떠한 개발사업을 막론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생활은 무공해의 깨끗한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

규모어항 및 어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규모 어항의 개발은 각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소득증대방안과 더불어 「아름다운 어항·어촌 가꾸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어항과 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당한 장소에 잔디밭이나 그늘막 또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 정돈된 어항과 어촌들을 여유롭게 거치면서 쾌적한 조건에서 가족과 휴일을 보낼 수 있다면 특별한 관광거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아지게 될 것이다. 먼저 어항과 어촌의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결하게 하는 한편 어항주위의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활오폐수 및 수산폐기물들에 대한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개발

최근에 각광받는 관광 경향 중의 하나로서 문화관광과 체험관광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풍

습이나 전통행사 등을 복원한 다거나 지역 특산물의 축제 등을 통하여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별로 지역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주도하는 이와 같은 이벤트에는 많은 예산과 전문적인 인력이 소요되며 자칫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될 수 있다. 어촌지역의 문화상품은 상업성을 최소화한 형태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동시에 교육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 지역의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며 무엇보다도 방문객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은 부분으로부터의 개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어항과 어촌지역들은 특별한 관광자원을 갖고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빈약한 관광자원을 메우기 위하여 인공시설의 설치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칫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개발은 커녕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의 목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실

현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작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속에서 새로운 개발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자신감을 키워나감으로써 관광어촌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통한 개발

행정당국은 각 어촌들의 노력과 성과 및 향후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방법으로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기술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지역에 적합한 개발방안의 수립이 가능하며 잘못된 판단과 정보로 인하여 개발노력이 실패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이 합심하여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관광어촌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맺음말

현재 노령화와 영세성, 어항 기반시설의 취약성, 환경의 열악성 및 개발정책 부재 등 어

촌이 처해있는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광어촌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행히 근래 들어 급속한 경제력의 향상으로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관광대상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촌과 해안 지역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 들어 지방도로의 확포장사업이 활발해져서 웬만한 지역은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다.

대부분의 어촌들이 특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나 어항과 바다 그리고 어촌 자체가 관광자원이며 이들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에 각 어항과 어촌들이 지니고 있는 특산물과 풍물 그리고 문화들을 부각할 수 있다면 관광어촌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어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지켜야할 방향으로서 주민의지에 기초한 개발, 환경의 보전을 고려한 개발,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개발, 작은 부분으로부터의 개발,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통한 개

현재 노령화와 영세성,
어항기반시설의 취약성,
환경의 열악성 및 개발정책
부재 등 어촌이 처해있는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광어촌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성공적인 관광어촌개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 진행의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일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당국은 각 어촌들의 노력과 성과 및 향후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관광어촌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